

中共 文藝理論 解說*

李 章 佑

I. 緒 說
II. 本 論

III. 結 語

I. 緒 說

지금 한국에 앉아서 中共의 現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들다. 文藝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近來 中共에 관한 일반의 관심은 높아져 가며, 또 아주 부진한 상황이기도 하나 中共에서 간행된 서적들이 국내에 더러 직접 普及되기도 하며, 어떤 경우에는 臺灣에서 영인되어 들어 오기까지 한다.

이 글을 초하는 동기는 앞으로 자주 접하게 될 中共의 中國文學이나 藝術一般에 관한 책에서 자주 나오는 술어들에 관하여 약간의 기초 상식을 마련하여, 비판적인 안목을 가지도록 하는데 있다.

주로 인용하는 책은 1981年, 中國 社會科學院 文學研究所에서 편집한 《中國文學研究年鑑》(《年鑑》으로 약칭함), 1979年版, 《辭海》(上海辭書出版社)¹⁾와 이 책에서 中國語文學에 관련된 항목만 뽑아 엮은 《中國語文學辭典》(《辭典》으로 약칭) 등이다. 설명하려는 문예이론의 11개 항목은 위의

* 이 글은 1984年 5月 24日 西江大學校 東亞研究所에서 행한 “中共에서의 學問研究”란 공동 발표중, 본인이 발표한 부분의 일부를 정리한 것임.

1) 이 사전은 1936년에 初版이 나온 字典과 百科辭典 성격을 종합한 책인데, 중국에서 1957년부터 개편작업을 시작하여, 몇 차례 試行本·未定稿를 낸 뒤 1979년에 巨帙 3冊으로 엮어내었다.

《年鑑》에서 제시하여 논의하고 있는 사항들이나, 그 내용은 모두 주로 1980년 일년동안에 논의되었던 관계 논문들의 요지를 요약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전문성을 띤 것들이므로 이해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아 설명은 대개 《辭典》에서 인용하고, 《辭典》에 설명이 없는 것이나 보충할 대목만 《年鑑》에서 더러 인용하려 한다.

먼저 文藝라는 말의 定義를 위의 《사전》에 보면; 「『文學』과 『藝術』의 統稱이며 때로는 협의의 「文學」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p.1)

이와 같은 책의 「文學」과 「藝術」이란 항목을 살펴본다.

「文學」——社會意識 형태의 하나. 中國의 秦나라 이전에는 철학·역사·문학 등 글로 쓴 저작을 모두 文學이라고 통칭하였다. 현대에 와서는 오로지 言語로서 形象을 만들어 社會생활을 반영하며 작자의 사상 감정을 나타내는 예술만을 지칭하기 때문에 또한 「言語藝術」이라고도 일컫는다. 文學은 어떤 社會생활이 사람들의 두뇌속에 반영된 산물이다. 계급사회에서는 문학은 계급성을 띤다……(p.1)

「藝術」——形象을 만들어 내어 구체적으로 社會생활을 반영하며, 작자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일종의 社會의식의 형태임. 예술은 인류의 社會 노동의 실전에서 기원하며, 어떤 社會 생활이 사람들의 두뇌속에 반영된 산물이다.

작자들은 모두 어떠한 계급적인 입장에 서서 생활을 인식하고, 반영하며 평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은 오로지 어떤 계급의 이익을 반영하며, 또한 社會 생활에 대하여 어떤 영향을 끼친다.

진보적이고 혁명적인 예술은 실제 생활에서 출발하여 典型的인 형상을 만들어 내며 어떠한 생활의 본질을 반영하며, 社會생활을 고무하게도 하고 인민들을 고무하고 교육하여 역사를 움직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작용을 두루 갖추고 있으며, 다방면으로 인민들의 심미적 수요를 만족시킨다.

몰락 계급의 반동적인 예술은 왕왕 현실 생활을 왜곡하여, 노동인민을 적시하고 소극적이고 퇴폐적인 사상과 정서를 산포하며, 저급 취미를 추구하여 社會의 진보 작용을 가로 막도록 한다.……(p.1)

위의 두 가지 설명을 종합하여 보면, 「文藝」는 社會意識의 한 형태이

며, 사회생활은 계급성을 띤 것이기 때문에 文藝도 階級性을 띤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中共에서는 文學연구도 社會科學의 일 분야로 생각한다. 中共의 文藝理論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社會科學과 관련된 여러 가지 共產主義 이론 체계를 이해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여기서 그런 것을 정확하게 요약하여 불만한 역량이 필자에게는 없다. 다만 공산주의 문예를 접할 때에 미리 유의하여야만 할 점을 아래에 옮겨 적어 놓고자 한다.

마르크스주의는 모순의 철학이다. 그러므로 마르크스주의 이론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어떤 것이든 뚜렷한 모순에 부딪치게 마련이다. 物質的 상황의 우월성을 신봉하면서도 그 상황을 변화시키는 인간의 역할에 역점을 두는 것, 이것이 마르크스주의를 특징 짓는 모순 가운데 하나이다.²⁾

物質生活의 토대가 바뀔에 따라서 사회가 변화하고, 「上部構造」(정치·도덕·철학·예술 등)도 바뀐다고 보면서도, 변화를 위한 영웅적인 투쟁같은 것을 아울러 강조한다는 것, (즉 「經濟的 決定論」과 「英雄的 反抗」), 다시 말하면 物質的 상황의 우월성을 신봉하면서도 인간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中共같은 공산주의 나라의 문예이론의 전제가 된다는 것을 상기하고자 한다.

Ⅱ. 本 論

1. 文藝와 政治

《辭海》에서는 「政治」란 말을 다음과 같이 풀이 하고 있다.

경제의 집중 표현임. 어떤 경제 기초위에서 생겨나며, 또 경제 기초를 위하여 복무하며, 경제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 계급사회에 있어서는 경제적인 이

2) D.W. 포케마·엘루드 쿠네 입쉬 著, 윤지환 譯 《現代文藝理論의 조류》(학민사, 1983), 제 4장 <마르크스주의 문예이론>(p.111) 첫머리.

익이 각 계급의 가장 기본적인 이익이다. 각 계급은 자기의 경제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피차간에 격렬한 계급투쟁을 전개한다. 그렇기 때문에 계급투쟁은 계급간의 관계를 처리하며 정치의 주요 내용이 된다.

정치가 처리하여야 할 관계는 계급내부의 관계, 계급사이의 관계, 민족 관계와 국제 관계이다. 그 표현 형식은 어떤 계급적인 정당·사회집단·사회세력이 국가 생활과 국제 관계 방면의 정책과 활동을 대표한다.

착취계급의 정치는 노동인민을 압박하고 그 계급의 좁은 이익을 옹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무산계급의 정치는 무산계급 정당의 영도아래서 폭력혁명을 사용하여 자산계급의 통치를 타도하여 무산계급의 전체 정치를 건립한다……(1980年 縮刷版, p.1465)

위의 말에서 「政治」는 「경제의 집중표현」이란 정의를 주목할만 하다. 레닌은 「정치는 천·백만인의 운명이다」라고 하여 무산 계급의 정치는 마땅히 수 천 수 백만 군중의 이익을 집중적으로 개괄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혁명적인 정치는 마땅히 인민 군중의 생산과 생활 및 그들의 정신·정조·문화·교육·도덕 등등을 제고시키는 일까지 두루 포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게 된다.³⁾

《年鑑》에 의거하면, 1957年 “反右”이전에 중공에서 「文學과 政治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대개 “문예는 반드시 정치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從屬說」과 “문예는 반드시 정치를 위하여 복무해야 된다”는 「服務說」 두 가지로 나누어 진다고 하였다.

이론 바 「예술을 위한 예술」이란 존립할 수 없고, 「인생을 위한 예술」 혹은 「정치를 위한 예술」이 존재한다고 보겠다.

2. 人性和文學

人性에 관하여서 《辭典》에서는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사회성 계급성을 제거하고 추상적으로 사람의 본질을 해석하며, 각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이 날 때부터 타고나고 고정 불변하며, 보편적으로 함께 가지고 있는 본성을 들어낸다는 관점과 학설. 또한 “抽象人性論”이라고도 한다. 중국 고대 철

3) 1981年 《文藝年鑑》 p.4 참조.

학자들 중에는 “性善論”, “性惡論”……등의 학설이 있음.

구라파에서는 문예부흥 이후로 人性論이 구라파 자산계급 인도주의 사상의 핵심이 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개성을 속박하는 봉건체도와 봉건도덕을 반대하고 개성의 해방을 제창하기 때문에, 반봉건적인 작용을 갖고 있다.

「抽象人性論」의 공통된 특징은 계급적인 관점에서 사람을 분석하지 않으며, 인간의 역사 발전에 비추어 人性을 해석하지 않는 것이다. 마르크스주의는 계급적인 사회에 있어서 人性은 구체적이며, 추상적이 아니라고 믿는다. 그래서 인성은 일정한 조건 밑에서는 어떤 共同性을 가지나, 인성의 社會性은 階級性을 띠지 계급과 무관한 것은 아니다.

무산계급이 정치무대에 등장한 뒤로부터 「抽象人性論」은 자산계급이 계급간의 조화를 들먹이며, 무산계급의 혁명과 무산계급의 독재(프로레타리아 독재)를 반대하는 무기의 하나가 되었다. (p. 22)

서구에서 문예혁명 이후로 등장한 「人性論」은 人道主義란 이름 아래 개성의 해방을 추구하기는 하였으나, 공산주의자의 관점에서 보면 사회성과 계급성이 결여된 추상적인 이론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推象人性論」이라고 부른다.

맑스주의에서는 人性은 일정한 조건 밑에서는 어떤 共同性을 띠며, 階級에 따라서 階級性을 띠게 된다는 것이다. 문학에서도 階級的 人性의 共同性을 중시하여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3. 現實主義

「寫實主義」란 말 보다는 「現實主義」란 말을 많이 쓴다⁴⁾

「現實主義」——文學 藝術史上 「現實主義」와 「浪漫主義」는 양 대 주요 사조임. 현실주의는 현실생활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생활의 본래 양식에 따라 정확하고 세밀하게 현실을 묘사하며 진실하게 典型環境 中の 典型人物을 표현할 것을 제창한다. ……현실주의 文藝는 中國에 있어서도 유구한 역사와 매우 높은 成就를 가지고 있는데, 문학 중에서 《詩經》의 일부분, 杜甫의 詩, 關漢卿의 皮肉, 曹雪芹의 《紅樓夢》 등은 곧 그 대표적인 작품이다.

구라파에서 19세기 초엽이후에 문학 예술 중에서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한 현

4) 寫實主義—現實主義의 舊譯임. 《辭典》p. 20.

실주의 문예사조는 「批判現實主義」로 불리운다. (p.20)

「批判現實主義」——구라파에서 19세기 30年代의 문학 예술중에서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기 시작한 문예사조. 그것은 자본주의 사회내부의 모순이 문학 예술에 날카롭게 반영된 것임. 그것의 진보적인 의의는 사회문제를 연구하는데 치중하며, 현실주의적인 태도로서 현실적인 생활면모를 진실되게 반영하여 확대시키고, 허다한 典型 意義를 가진 귀족, 자산계급의 人物型象을 만들어 내며, 봉건사회와 자본주의 사회의 죄악현상을 들어내어 폭로하며, ……어떤 작품은 노동인민들의 비참한 처지에 대하여 동정을 표시하기도 하며, 동시에 예술 기교와 수법을 풍부하게 하기도 한다.

그러나 「批判現實主義」의 작가들은 역사와 계급적인 한계 때문에 죄악이 생겨나는 근원을 지적하여 내지 못하며,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와 사회발전의 필연적인 추세를 들어내어 제시하지 못한다. 대표적인 작가로는 프랑스의 발자크, 스탕달, 영국의 디킨스, 소련의 고고리, 톨스토이 등이 있다. (p.20)

보통 서구세계에서 19세기 30年代에 유행한 「現實主義」는 자본주의의 죄악을 폭로하기는 하나, 그 죄악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지 그 원인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주의는 공산주의의 현실주의와는 다르기 때문에 「批判現實主義」라고 부른다. 이 말을 또 「舊現實主義」⁵⁾라고 부르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비판적 현실주의」라고 번역한 책도 있다.⁶⁾

「現實主義」라는 말과 관련하여 「社會主義現實主義」와 「革命現實主義와 革命浪漫主義의 結合」이란 용어가 있다.

「社會主義現實主義」——1932年 전후에 소련의 작가들과 소련의 당의 영도인 물들이 수 십년이래의 국제 무산계급의 혁명문학, 특히 소련의 사회주의 문학의 창작 경험을 총 결산하여 제출한 것으로, 1934年 제 1차 소련작가대표대회에서 정식으로 소련의 문학 창작과 문학 비평의 기본방법으로 확정되었다.

그것은 작가 예술가들이 현실적인 혁명발전 가운데서 진실하게, 역사적이고 구체적이게 현실을 묘사하여 낼 것을 요구하며, 동시에 예술묘사의 진실성과 역사의 구체성은 반드시 사회주의 정신을 사용하여 사상상으로 노동인민을 개조하고 교

5) 《年鑑》 p.15.

6) 위의 윤지판 역서.

육한다는 의무와도 결합하도록 하여야만 한다.”

그것은 예술창작의 특수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증하여 창조의 主動性을 표현하며 각종 각양 의 형식, 風格, 체제를 선택하도록 한다. 꼬리끼가 1906년에 세상에 내어놓은 장편소설 《어머니》가 「社會主義現實主義」문학의 바탕으로 공인되었다. (p.20)

「革命現實主義와 革命浪漫主義의 結合」—1958년 중국에서 國民經濟 第五個年 계획을 開始 實施 發展시킬 때에, 객관 형세의 수요에 적응하고, 또 문학 예술 자체의 발전 규율에 근거하여 제출된 사회주의 문학예술의 예술 방법.

이 방법은 문예공작자들에게 혁명氣概와 求實정신을, 혁명理想과 객관現實을 결합한 원칙을 문학예술에 운용할 것을 요구하며, 현실주의와 낭만주의의 두 가지 예술방법을 변증법적으로 통일할 것을 요구한다.

그것은 문예공작자가 무산계급의 입장에서 서서 맑스·레닌주의의 관점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관찰하고 표현하며, 現實과 理想, 革命實踐과 歷史趨向을 결합하여, 장려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예술 형상을 만들어 내고, 열정적으로 혁명을 통하여 새로 생겨나는 사물을 노래하고, 반동적이고 부패한 사물을 공격하여야 한다.

이러한 예술 방법을 제창하기는 하나, 결코 이것을 유일한 예술방법으로서 모든 예술가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1934년 제 1차 소련 작가 회의에서 정식으로 확정된 문학 창작과 비평의 기본 방식인 「社會主義現實主義」는 “革命發展 가운데(도상에) 있는 現實”을 묘사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따지고 보면 現實이 아닌 것(아직 현실이 아닌 것, 혁명을 통하여 성취하고자 하는 것)까지도 묘사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그것은 이미 「現實主義」라고 이르기 어렵다고 여겨진다.

소련의 이 「社會主義現實主義」라는 구호는 혁명이전에 나온 수 많은 고전작품(구문학, 부르조아문학)을 어떻게 수용하는가, 공산주의 문학에서 문제가 되는 浪漫的인 요소와 寫眞的인 요소를 어떻게 서로 조화시키는가 하는 등의 문제들을 놓고 고심한 결과, 일종의 절충책으로 나온 것이라고

7) 1934년, 소련 작가 동맹 정관에 나온 말.
윤지관 역서, p.133에도 인용하여 보임.

한다.⁸⁾

중공에 들어와서는 이러한 절충책으로 채택된 「社會主義現實主義」를 「社會主義時代의 現實主義」라는 말로 바꾸어 배경하고 「革命的現實主義와 革命的浪漫主義의 結合」(「兩結合」)이라고 줄여서 사용하기도 함)이란 말을 만들어, 「革命理想」과 「革命實踐」을 강조한다.

중국 마르크스주의 비평과 소련 마르크스주의 비평 사이에 존재하는 뚜렷한 차이점을 전자가 후자의 경우처럼 르네상스에서 혁명 전 러시아 고전에 이르는 유럽문학을 흡수하려고 애쓸 필요가 별로 없었다는데 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유럽의 유산이 러시아인 보다 중국인에게 별로 큰 의미를 띠지 못하기 때문에, 모택동주의 문학비평은 훨씬 일관성 있고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중국 지도자들은 마르크스주의 원칙 내지 그들이 마르크스주의 원칙이라고 보는 것을 단호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대약진운동 기간 동안, 중국인들은 「사회주의적 리얼리즘」의 모호한 개념을 비판하면서 절충주의를 피하려는 시도를 보인 바 있다. 1953년에서 1958년 사이에 중국에서는 사회적 리얼리즘이 하나의 이상형으로 애용되었다. 그러나 백화운동 기간 동안 일부 중국작가들이 이를 '사회주의 시대의 리얼리즘'이란 표현으로 바꾸어서 사회주의적 리얼리즘이란 말에서 풍기는 이데올로기적 내용을 박탈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공식적인 중국 이론가들은 "혁명적 리얼리즘과 혁명적 낭만주의의 결합"이라는 말을 주조해 내어서 모호한 소련식 공식 대신에 사용했다. 이 새로운 개념은 문학의 혁명적 목표를 강조하는 대신 진실한 재현의 요구는 삭제해 버렸다.⁹⁾

소련의 「社會主義現實主義」와 중국의 「革命的現實主義와 革命的浪漫主義의 兩結合」이 각각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있으며 어떤 특징을 갖는지 필자로서는 자세히 알 수 없다. 다만 국내에 발간된 관련된 글에서 그 차이점을 설명한 부분을 소개하여 보았다.

8) 이 일단은 바로 위와 같은 책, 같은 p. 참조.

9) 같은 책, pp.143~156. <중국의 마르크스주의 문학이론 수용> 첫머리에서 인용.

4. 文藝眞實性

「眞實性」이란 말을 옮겨본다 :

문학 예술 작품이 예술 형상을 거쳐서 사회생활을 반영하여 다달을 수 있는 정확함과 심각함의 정도.

계급적인 사회에 있어서는 작가 예술가가 모두 어떤 계급적인 입장에 서며, 어떠한 계급적인 세계관에 비추어 생활을 인식하고 반영하며, 다만 작가 예술가가 사회생활의 어떤 본질적인 면을 인식할 수 있고, 또 비교적 높게 표현할 능력이 있을 때에만, 비로소 어느 정도 다르게 사회생활의 眞實을 반영해 낼 수 있고, 어떤 사회 현상의 본질적인 의의를 들어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예의 진실성과 작가·예술가의 진보적 세계관, 혹은 세계관 중의 진보적 인소 및 사회생활을 이해하는 정도는 서로 연계가 있다.

무산계급의 작가와 예술가는 실제 생활에서 출발하여 맑스주의 세계관을 운용하여 최대한도로 사회생활의 본질과 그 발전 규율을 반영하여야 하며, 政治性和 眞實성이 완전히 일치하는 문예작품을 창조해 내어야 한다.

문학 예술의 진실은 실생활 중의 실제 사람과 사정과는 다르며, 문예 작품중에 반영되어 나오는 생활은 마땅히 보통적인 실제 생활보다는 더욱 높고 더욱 강렬하고, 더욱 집중적이고, 더욱 典型的이며, 더욱 이상적이기 때문에 더욱 眞實성과 感染力을 갖추고 있다. (《辭典》p.2)

「眞實性」이란 사회적 현실에 대한 충실성을 말하나, 현실을 이상화할 수도 있다. 여기서 말하는 「眞實性」¹⁰⁾이란 말은 맑스의 문학이론에서 중요한 술어인 「迫眞性」(verisimilitude)이란¹¹⁾ 용어와 관련을 가진 것 같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용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서로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眞實性과 더불어 공산주의 문예이론에서 중시되는 것은 「傾向性」이란 용어이다.

사람들의 계급입장과 정치사상이 言論·行動상으로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 문

10) 윤지환이 번역한 위의 책 영어 원본을 보면, 「眞實性」이란 말은 truthfulness (p.86)로 되어 있음.

11) 위의 번역본 p.114 이하 참조.

에 작품의 傾向性은 작가 예술가의 계급입장과 정치사상이 작품 중에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며, 또한 곧 작자의 사회사상과 현실생활에 대한 愛憎태도의 반영이다.

각 계급의 작가·예술가는 생활을 관찰하는 데서부터 題材를 선택하고, 主題를 다듬고 人物形象을 만들어 내기까지 모두 현실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나타내며, 어떤 계급의 관점과 정치 傾向을 반영한다.

무산계급의 문예작품은, 政治傾向성을 藝術形象의 진실한 묘사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구체화되어 나타나서, 혁명적인 政治傾向성이 藝術的인 「眞實性」과 서로 통일될 것을 요구한다. (《辭典》p.2)

문예의 「眞實性」은 진보적 혹은 혁명적인 社會主義 경향과 서로 일치할 때에만 비로소 社會主義 文藝가 요구하는 것이 된다고 한다.

5. 맑스주의 文藝의 理論體系

공산주의 이론의 계보는 맑스·엥겔스·레닌·스탈린·毛澤東에 이른다. 그러나 이들은 文學에 관하여 완전하고 정연한 체계를 세웠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들은 가끔 文學에 관하여 언급하기는 하였으나 그들의 視點은 대개 그들의 哲學·經濟學 등 저작, 혹은 편지 중에서 散見되고 있으며, 그들이 중점을 둔 것은 文學의 “外部規律”에 관한 문제들이지, 文學의 “內部規律”에 관하여서는 철저히 다룰 틈이 없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중국의 방대한 文化遺産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中國의인 맑스주의 文藝學을 建立하느냐는 것이다.¹²⁾

6. 異化문제

「異化」란 말에 대한 《사전》의 풀이를 보자 :

독일어 *Entfremdung* 의 외역임. 독일 고전 철학 술어. 主體가 일정한 발전단계에서는 그것과 대립되는 면으로 분열되어 바깥으로 자기와 다른 역량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가르킴.

헤겔은 唯心主義로부터 출발하여 “絕對觀念”은 論理가 발전하는 단계를 통하여 다시 자신을 외부세계로 “異化” 혹은 轉化시켰다가 또 자신으로 되돌아오게 한다

12) 《年鑑》 pp. 25~26.

고 믿었다.

포이엘바하는 “異化”를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환상을 빌어 그들의 본질을 하느님으로 “異化”하여 놓고서, 그것에 대하여 경외를 표시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마땅히 사람은 사람의 최고 본질이고, 하느님의 본질이란 곧 사람의 본질이란 것을 인식할 때에만, 비로소 이러한 “異化” 현상을 제거할 수 있으며, 하느님에 대한 미신을 타파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맑스도 또한 “異化”라는 말을 사용하였으나, 단 새로운 내용을 부여하여 그의 勞動異化에 관한 개념을 표명하였다. 맑스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마치 사람들이 머리로서 하느님을 만들어 놓고는 하느님의 지배를 받는 것과 같이, 계급 사회에 있어서는 노동자들이 財富을 창조하여 놓았는데, 財富은 도리어 자본가들이 모두 독차지하여 버리고, 노동자들로 하여금 그 지배를 받게 한다.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재부는 재부의 점유에서부터 노동 자체에 이르기까지 모두 “異化”되어 노동자들을 통치하는 것으로 바뀌어, 노동자들과는 적대하게 되어 “異化”의 역량은 반드시 私有制度和 社會分工의 대항형식을 소멸해야만, 비로소 이러한 異化現象을 타파할 수 있다고 하였다. —《辭海》p.1077

여기서 이야기하는 “異化”란 말은 우리 나라 말로는 “疏外”라고 흔히 쓴다. 또 “自我異化”란 말도 있는데, “自己疏外”(Selbstentfremdung)로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자기 쓰고 있다.¹³⁾

그들의 설명을 빌리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많은 군중들이 경제적으로나, 의식적으로 소외를 당하고 있다. 이러한 “疏外”의 문제는 자본주의의 나라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에서도 있을 수 있다고 한다.

四人幫이 말하하던 文化大革命기간 동안의 중국에서나, 소련과 같이 잘 못된 사회주의 나라에서는 얼마든지 이러한 소외 현상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¹⁴⁾

7. 形象思維

《辭典》의 정의를 보자:

「藝術思維」라고도 부름. 문학 예술 창작자가 생활을 관찰하고, 창작재료를 습

13) 岩波《哲學》小辭典, 1976, p.76, 구스타프 A. 배터 著, 姜在倫역 《辯證法的唯物論批判》太陽文化社, 1981, pp.267~8 등 참조.

14) 《年鑑》p.29.

취하는 것에서부터 藝術形象을 이루어내기까지의 전 창작과정에 걸쳐서 진행되는 주요한 思維활동과 思維방식을 말한다.

「형상사유」는 인식의 일반 규율을 따른다. 즉 實踐을 통하여, 感性단계를 거쳐서 理性단계에 이르기까지 발전하여 사물의 본질에 대한 인식에까지 이른다. 단 「形象思維」는 또한 다음과 같은 특수한 규율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形象에서 벗어나지는 않으나, 오직 순전히 우연한 것, 부차적인 것, 표현적인 것만은 버린다.

그것은 「論理思維」와 서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우는 것이다.……

형상사유는 창작자의 세계관에 지도와 지배를 받으며, 또한 그들의 사회생활에 대한 파악, 이해 정도의 제약을 받기도 하며, 풍부한 예술 수양과 창작경험은 형상사유를 정확하게 운용하는데 또한 적극적인 작용을 한다. (p.9)

요약하면 「形象思維」는 문학 예술 창작자가 창작과정 중 진행되는 모든 사유활동과 사유방식을 말한다. 이 말을 「藝術思維」라고도 부르며, 「論理思維」(원어는 Logic 을 음역하여 「邏輯思維」라고 함)와 서로 도움을 받는 단계에 있다. 「形象」이란 영어로는 image 란 말을 그렇게 옮긴 것이다.

8. 藝術典型

「典型」이란 말을 《辭典》에서 살펴본다:

“典型人物”, “典型形象”, 혹은 “典型性格”을 말한다. 작가가 「典型化」 방법을 사용하여 창조하여 낼 수 있는 선명하고도 독특한 개성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또한 어떤 사회의 본질을 반영해 낼 수 있는 어떠한 방면의 藝術形象을 가르킨다. 전형형상을 만들어 내는 것은 문예창작의 중심문제의 하나다.

엔겔스는 일찌기 작가는 마땅히 “典型環境 中の 典型人物”을 만들어 내어야 한다고 하였다(〈마아가렛·하르니스에게 보낸 편지〉). “매 개인은 모두 典型이어야 하나, 동시에 어떤 단일한 개인이어야 함은 꼭 老 헤겔이 말한 바와 같은 ‘이 사람’이기도 해야 한다”(〈미니 카우츠키에게 보낸 편지〉).¹⁵⁾

작가가 성공적인 典型을 만들어 낼 수 있는가 없는가는 그의 世界觀과 그가 그의 현실생활에 대한 익숙함과 이해의 정도 및 파악하는 예술방법, 예술기교 등에

15) jeder ist ein Typus, aber auch zugleich ein bestimmter Einzelmensch, ein ‘Dieser’, wie der alte Hegel sich ausdrückt, und so muss es sein. 윤지판의 위의 역시 p.121 주에서 재인용.

달려 있다.

典型形象은 현실생활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또한 보통의 실제생활보다는 더욱 높고, 더욱 강렬하고, 더욱 집중성이 있으며, 더욱 보편성을 갖는다. 典型은 풍부한 社會意義를 갖추고 있으며, 사람들에게 있어버릴 수 없는 인상을 남겨줄 수 있으며, 심각한 社會認識작용과 思想敎育作用을 일으킬 수 있다. (p.5)

「典型化」라는 말을 《辭典》에서 다시 살펴본다.

작가 예술가가 그것으로서 현실 생활을 개괄하고 典型形象을 창조할 수 있는 방법이다. 概括화와 個性化 두 가지 방면을 다 포괄하면, 個別的인 것을 통하여 一般的인 것을 반영하고, 각종의 독특한 개성적인 人物과 구체적인 모순 충돌을 통하여 어떠한 특정한 시대의 社會面貌와 階級面貌를 반영한다. 이 두 가지 면은 창작과정 중에서 통일적인 것이고 분할된 것은 아니다.

무산계급의 문예가는 典型化의 방법을 장악하여 각종 각양의 典型形象을 창조하여 낼 수 있어야만, 맑스주의 세계관과, 풍부한 생활추적과 고도의 예술기교를 갖추고서 분할한 사회생활 형상에 대하여 비본질적인 것을 분석·선택·집중·개괄·제거할 수 있고, 그 중에 본질적이고 주요한 것은 두드러지게 들어내고, 또 충분한 상상과 합리적인 虛構를 가함으로서 작품으로 하여금 반영되어 나오는 생활이 “보통의 실제 생활보다는 더욱 높고, 더욱 강렬하여, 더욱 집중성이 있고, 더욱 典型적이고, 더욱 理想의이며, 이 때문에 곧 더욱 보편성을 띠어야만 한다” (모택동 《延安文藝講話》) (p.5)

이 밖에도 같은 《辭典》에 「典型性」「典型環境」 따위 용어가 있으므로 여기 인용하여 본다 :

〔典型性〕——작가, 예술가가 「典型化」의 방법을 운용하여 예술형상이 도달할 수 있는 개괄화와 個性化가 통일되어 다달을 수 있는 정도. 예술 형상의 個性 특징이 더욱 선명하고 생동할수록 제시되는 사회본질은 더욱 심각하고 個性과 共性이 더욱 통일될수록 典型性은 더 높아진다. 어떤 때는 文藝에 속하지 않는 講話와 論著 중에도 사물에 대하여 쓴 것이 고도의 概括力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鮮明한 個性 특징을 갖추고 있는 묘사를 갖고 있음을 가르키기도 한다. (p.5)

〔典型環境〕——원래는 엥겔스가 제출한 “典型環境 중의 典型人物”(《마아가렛·하르니스에게 보낸 편지》)이라는 現實主義 문학예술 창작원칙에서 나왔다. 문예

작품 중에 典型人物이 생활하는 것, 그 성격을 형성하고 아울러 그 행동을 구사하는 특정한 환경은 어떤 역사시대의 사회생활과 그 발전추세가 작품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임을 가르킨다.

典型人物은 오직 典型環境 중에서만 형성되며, 작가 예술가는 오직 인물성격이 형성하는 주요 역사조건과 인물주위의 구체환경을 파악하여야만, 비로소 典型人物을 만들어 낼 수 있다.

「典型」이란 영어로는 “type” 독일어로는 “typus”라고 하는데, 그것은 現實의 概括이요, 人間의 모든 그룹에 있어서의 特質的인 특징을 한 個人的인 形象속에 통일한 것이다.

9. 文藝反影本質問題

먼저 《辭海》에서 「本質과 現象」이란 항목을 옮겨본다 :

본질은 사물의 내부와 연관되어 있다. 그것은 事物의 비교적 깊고도 일관되며, 안정된 면이다. 現象은 本質의 각 방면의 외부표현인데, 일반인들이 感官을 통하여 직접 감각할 수 있는 것은 사물의 비교적 표면적이고, 산만하며 변화가 잦은 면이다. 어떠한 事物도 모두 그 本質과 現象을 가지고 있다.

本質은 전체적으로 사물의 성능과 발전방향을 규정하고, 복잡한 現象은 각각 어떤 특정한 방면으로 사물의 本質을 표현한다. 本質과 現象은 통일적인 것이나, 또한 결코 직접 서로 부합되는 것은 아니다. 假象 또한 사물 本質의 일종의 표현이나, 단 그것은 事物本質을 어떻게 좀 의곡하고 전도한 표현이다.

모택동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 「우리들은 사정을 볼 때에 반드시 그것의 實質을 보아야 하며, 그것의 現象은 오직 入門할 때의 向導로 보아야만 된다. 한번 문에 들어가면 그것의 實質을 파악하여야만 한다. 이것이야 말로 믿음만한 과학적인 분석방법이다. 《毛澤東選集》第1卷, 人民出版社, 1968, p.96) 사람들이 사물을 인식하는 과정은 “現象으로부터 本質로 들어가며,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본질로부터 더욱 심각한 본질로 들어가는 深化의 무한한 과정”이다. 《레닌全集》第38卷, 人民出版社, 1959, p.239)

사람들이 實踐도상에서 科學研究를 진행함은, 그 목적이 곧 現象을 통과하여 本質을 나타내며, 사물의 발전방향을 파악하는 데 있다. (p.1247)

文藝作品中서 다루는 것은 社會生活에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現象들인데

이것이 어떻게 社會生活의 本質을 잘 나타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더구나 文藝는 科學이 아니며, 社會에 대하여 과학적인 抽象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적는 것은 구체적이고 느낄 수 있는 形象이어야 하며, 그것은 個別的인 것이다.

우리가 아는 상식에 의거하면, 「역사학」이라는 것은 보통 한 특정한 시대의 한 「集團」의 움직임울 연구하는 것이며, 「언어학」이란 보통 한 「集團」의 공통된 언어를 연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文學研究」란 보통 한 집단의 움직임을 연구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한 個人, 예를 들면 李白이면 李白, 杜甫면 杜甫같은 한 특정한 개인의 특정한 작품을 연구대상으로 삼는 것이 관례이다. 이러한 경우 李白의 어떤 특정한 作品, 杜甫의 어떤 특정한 작품이 능히 그가 살고 있었던 시대——盛唐時期的——사회생활의 본질을 반영하고 있는가 어떤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10. 塑造英雄形象

공산주의 이론에서는 緒說에서 이야기 한 바와 같이 물질생활의 생산양식이 사회적·정치적·지적 생활과정을 결정짓는다고 본다. 인간의 발전이 어느 일정한 단계에 이르면 물질적 생산력은 기존의 생산관계(인간이 맺고 있는 소유관계)와 충돌을 일으키게 된다. 생산력의 발전을 위한 조건의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소유관계는 속박이 된다. 그리하여 사회혁명기가 도래한다고 본다.¹⁶⁾ 이러한 이론을 「經濟的 決定論」이라고 한다. 그들은 이러한 물질적 상황의 우월성을 신념하면서도, 그 상황을 변화시키는 인간의 역할에 역점을 두기도 한다. 「唯物論」을 강조하면서도 「英雄的인 反抗」같은 것을 아울러 강조한다.

사회주의 문예는 확실히 영웅인물을 적어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 그렇게 강조한 것은 완전히 정확한 것이다. ……“영웅인물을 적어내

16) 위에 인용한 윤지관 역서, p.115 참조.

어야만 한다”(寫英雄人物)는 구호가 본질적으로 옳은 원인은 다음과 같다: 문예는 현실을 반영하여야 하는데, 생활 속에 대량으로 존재하고 날로 날로 더욱 많아져 가는 英雄人物들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영웅인물을 묘사해 내어야만 하는 객관적인 기초이며, 하나의 주요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더욱 근본적인 원인은 문예와 생활과의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영웅인물의 양에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 黨이 영웅인물을 적어내어야 한다는 것을 제창하는 근본 원인은 당의 영도 아래 있는 人民文藝의 성질과 임무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자면 文藝와 人民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社會主義 文藝는 각종 자양의 인물의 묘사를 통하여 사람들을 교육하는데, 새로운 영웅인물을 묘사하는 그러한 正面 教育示範·鼓舞作用은 다른 인물들 묘사하는 것과는 비교할 바 못될 것이다. (《年鑑》p.39)¹⁷⁾

위 인용문의 마지막 부분은 文藝가 人民을 교육시키고 고무시키는데 「英雄」을 내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 「英雄形象」문제는 위의 8항에서 이야기한 藝術典型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이 생각된다.

11. 共同美

《年鑑》에 「共同美」에 관한 설명을 인용하여 본다:

「共同美」에 관한 토론은 1978년부터 시작되었다. 이 해에 나온 《復旦學報》復刊號에서는 邱明正의 〈試論共同美〉라는 글이 발표되었고, 《社會科學戰線》第三期에서는 또 克地·張錫坤의 〈美·美感和藝術美, 不同階級也有共同的美〉가 발표되었다. 이 두 편은 모두 何其芳의 〈毛澤東之歌〉에서 제기한 毛澤東동지가 일찌기 말한 다음과 같은 말: 「각 계급은 각 계급의 美가 있으나, 각 계급은 또한 共同的인 美를 가지고 있다. ‘입에다 넣고 맛을 보면, 같이 즐겁만한게 있다’(口之于味, 有同嗜焉)는 말과 같다.」에 근거하고 있다.

이렇게 不同한 時代, 不同한 民族, 不同한 階級 간에는 不同한 階級美가 있을 뿐만 아니라, 相同하거나 혹은 相似한 「共同美」가 아직도 존재한다고 한 뒤부터, 「共同美」의 문제는 곧 열렬하게 토의되기 시작하였다. (p.41)

17) 張超의 〈爲什麼必須肯定寫英雄人物的口號〉, 《文學評論》, 1980年 第五期에서 인용함.

앞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文學이나 人性에서 階級性을 중시하는 中共의 文藝理論에서 美的 「共同性」을 논한다는 것이 모순같이 보인다. 그런데 왜 「共同美」를 들고 나와야만 하는가?

「共同美」에 관한 문제의 토론과 연구를 진행하는 이유는 美學영역 안에서 唯物辨證法的인 兩點論을 견지하여 오랫동안, 존재하여온 '이것 아니면 저것이다'(非此即彼)라는 片面性을 극복하는데 유리하고, 또 사상을 해방하고 眼界를 확장시키며, 손과 발을 펴서 광범하게 中國과 外國의 문학·예술의 유산을 학습하여 우리나라의 4대 現代化事業을 위하여 복무하는데 더욱 유리하게 하기 위함이다. — 《年鑑》 p. 41¹⁸⁾

文藝에서 「階級性」을 강조하는 것이 공산주의 문예이론의 특징인데, 1970年代 말기에 들어와서, 「共同性」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은 주목할만 하다. 이러한 논의가 나오게 된 동기는 위에 인용한 내용과 같이, 근간에 흔히 듣는 중공의 실용주의 노선·문화개방 정책 따위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Ⅲ. 結 語

이상과 같이, 중공에서 1980년대 초에 많이 논의되고 있는 문예이론에 관련된 몇가지 용어들을, 주로 거기서 나오고 있는 사전에 의거하여 우리 말로 옮겨보고, 약간의 해설을 시도하여 보았다. 그러나 《毛澤東選集》한 권도 原書로 된 것을 읽어볼 기회를 가져보지 못한 필자와 같은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概念을 아주 기본적으로, 또 가장 자주 사용하는 것조차도 쉽게 파악하기가 꽤 힘들었다.

자료의 부족에 겹쳐, 또 더 더욱 힘든 것은 공산주의식 변증법적 사고 체계이다. 이 글 緒論에서 인용한 포케마의 말과 같이 “마르크스주의는 모순의 철학이다. 그러므로 마르크스주의 이론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려는

18) 李敬敏의 〈共同的 “人性美” 初探〉, 《社會科學研究》, 1980年 3期에서 인용함.

시도는 어느 것이든 뚜렷한 '모순에 부딪치게 된다'는 것이다.

위에 항목들을 소개하면서 두드러지게 느낀 인상 몇가지 만을 간추려 본다.

1) 문에는 政治에 從屬되든지, 政治를 위하여 服務하든지 하여야 한다. "藝術을 위한 藝術" 따위는 있을 수 없다.

2) 공산주의 문예에서는 階級的 人性的 共同性을 강조하여야 하며, 봉건주의 자산계급의 죄악을 철저히 규명하여 폭로하여야 한다.

3) 1950 년대의 中共의 文藝理論은 소련의 문예이론보다도 강경하고 혁명적이다. 소련에서 1934 년에 채택된 구호가 "社會主義現實主義"인데, 중국에서는 그것을 "社會主義시대의 現實主義"라고 말하고, 그 이론 자체에 내포된 절충적인 면을 배격하며, 1958 년에 가서 "革命的現實主義와 革命的浪漫主義의 兩結合"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革命的 目標을 강조하였다.

4) 1970 년대 말기, 1980 년대에 접어들면서 中共의 실용주의노선·문화 개방정책 등에 맞추어 그들이 理論에서도 「階級的」인 요소를 강조하는 면 이외에, 인간이면 모두가 다 보편적으로 가질 수 있는 「共同的」인 요소에 관한 관심도 등장하는 듯 하다. 「共同美」에 관한 것이 그것이다.

《參 考 書 目》

1. 《中國語文學辭典》(《辭海》文學·語學分冊), 上海, 辭書出版社, 1982.
2. 《辭海》(縮印本), 上海, 辭書出版社, 1980.
3. 《中國文學研究年鑑》(1981), 中國社會科學院文學研究所編, 中國社會科學出版社出版, 1982.
4. D.W. Fokkema, Elrud Kunne-Ibsch *Theories of Literature in the Twentieth Century*, London, 1977.
5. 윤지관 역 : 《現代文學理論의 조류》(위의 책의 번역본), 서울, 학민사, 1983.

A Brief Survey of Communist China's Literary Theories

Lee, Jang-wu

In this survey, the writer introduces eleven key concepts, or terms which characterize Communist China's literary arts as a unique realm. The terms are actually eleven headings under which yearly review of the literary works produced in Communist China are undertaken in the *Year Book of Literary Art* published by the Institute of literature, The Academy of Social Sciences, People's Republic of China. Official interpretations of the terms are given in the *Ci Hai*, the authoritative literary dictionary published by the Shanghai Dictionary Press in 1980.

The eleven terms are:

1) Art and Politics, 2) Human Nature and Literature, 3) Realism, 4) Literary Truth, 5) Theoretical System of Marxist Literature and Art, 6) Alienation, 7) Image Transformation, 8) Ideal/Proto-Types of the Art, 9) Essence and Phenomenon, 10) Portrayal of Heroic Image, and 11) Universal Beauty.

The way the Chinese authorities define, interpret and explain the terms reveals idiosyncratic nature of the Communist China's policy in guiding literary arts, and the writer summarizes the Characteristics as the followings.

First, literary arts are geared only to serve politics. The spirit of *L'art pour L'art* is denied.

Second, literary arts are to portray universal nature of the classes. Special emphasis is put on the role of literary art to reveal evil nature of the bourgeois class.

Third, the PRC's policy on Literary works has been far more rigid and "revolution-oriented" than that of the Soviet Union. During the Stalin era, the Soviet literary arts were guided under the slogan of the "Socialist Realism." In the 1950s, the PRC heralded "Combination of the Revolutionary Realism and Revolutionary Romanticism." The latter is far more politically oriented than the former.

Fourth, the PRC's new political moves toward the *Shihyung-Chui* and the open-door policy affect its policy on literary works. Starting from the late 1970s, "universal beauty" has regained its importance as a basic element of the literary arts.